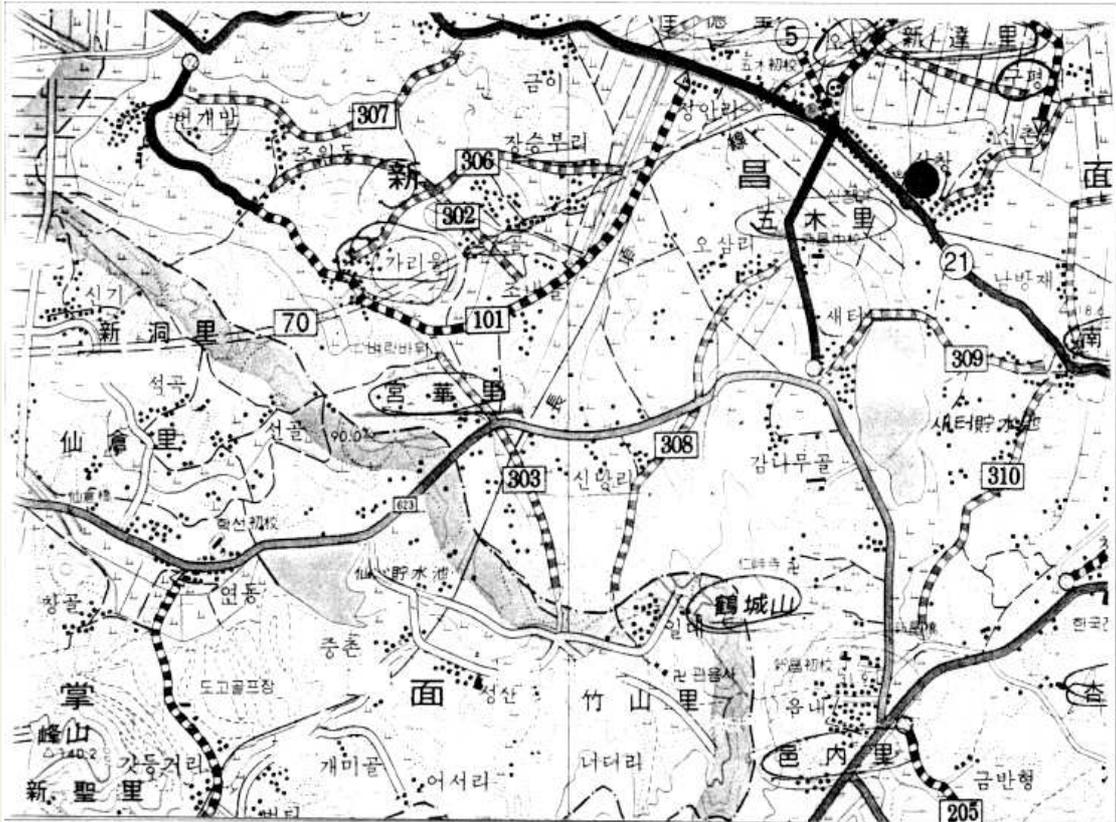


* 마을사 *

궁화리·宮華里

궁화리는 신창면의 한 마을로 궁골과 조내골로 나뉘어지며, 인구수는 남자 238명, 여자 224명이고, 가구수는 161호에 이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래 신창군 소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신당리, 조내동, 화산리, 동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궁동과 화산의 이름을 따서 궁화리라 하여 아산군 화성면에 속했다가 1921년 다시 신창면에 편입 되었다.

<궁화리 위치도>



⊗ 궁골, 조내골 마을(궁화리)

궁화1리는 궁골, 국시미, 안터, 돌팍재, 중말, 장승부리로 이루어졌으며, 궁골은 궁화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서 "궁"이나 "꿩"은 구유의 고어로서 궁골은 구유골이란 뜻으로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데서 유래되었으며 국시미는 뒤에 국수봉의 마을이란 뜻으로 "수"가 "시"로 변음되었고, 안터는 중말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돌팍재는 안터 위쪽 산 등성이에 있는 마을로 돌을 파낸 자리가 있다 하여 유래 되었으며, 중말은 장승부리와 안터 중간이 됨으로 붙여진 지명이며, 장승부리는 마을 앞 산부리에 장승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궁화2리는 신당리와 조내골로 나뉘지며, 신당리는 새 당집을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조내골 마을은 지형이 조리와 같아서 조내골이라는 설이 있고, 이곳에 "조"를 심는 밭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사당시 궁화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궁골 마을은 면소재지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선장면의 선창리, 신동리, 죽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조내골 마을은 위도 36-47-50, 경도 127-54-3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면소재지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가옥이 도로 옆에 위치한다. 조내골은 가리울과 신당리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2) 현황

궁골 마을은 인구수는 남자 128명, 여자 117명으로 총 245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92호에 이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한다.

조내골 마을은 인구수는 남자 110명, 여자 107명으로, 총 217명이며, 호구수는 69호에 이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궁골 마을	245명	128명	117명
조내골 마을	217명	110명	107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서비스업
궁골 마을	100%	71%	29%

조내골 마을	100%	68%	32%
--------	------	-----	-----

궁골 마을은 논 63ha, 밭 39ha로 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이 농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 앰프가 구비되어 있는 마을 회관 1개소가 있다.

조내골 마을은 논 34ha, 밭 19ha로 논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 되며 궁골 마을보다 농경지가 적으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이 농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마을 회관 1개소 있으며 앰프가 구비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궁골 마을	102ha	63ha	39ha
조내골 마을	53ha	34ha	19ha

-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궁골 마을	1개소	1개소	-
조내골 마을	1개소	1개소	-

궁골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김씨 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씨 11%, 최씨 13%로 기타 성씨 54%로 조사 되었고, 연령별 분포도는 40대~70대가 가장 많다.

조내골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김씨 22%, 이씨 16%, 최씨 14%, 기타 성씨가 48%가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별 분포도는 40~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김씨	이씨	최씨	기타성씨
궁골 마을	92호	20호	10호	12호	50호
조내골 마을	69호	15호	11호	10호	33호

- 최고령자

궁골 마을은 최고령자는 안 화중씨로 84세이며, 조내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전 영옥씨로 82세이다.

3) 자연경관

궁골마을에는 궁화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서 국수봉, 오리봉이 있어 자원이 풍부하여 마을 앞으로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어 농사를 짓기에 편리하다.

조내골은 지형적으로 신당리와 나뉘지며 주변 마을에 비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확량이 많고 대부분의 가옥이 도로를 따라 발달했기 때문에 소통의 불편함이 적다.

4) 마을변천과정

궁골 마을과 조내골 마을은 본래 신창군 소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당리, 조내동, 화산리, 궁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궁동과 화산의 이름을 따서 궁화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속했다가 1921년 다시 신창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궁골 마을은 인조때부터 순응 안씨가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고 하며, 서기 1500년경 약 5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응 안씨가 현재 정안리에 와서 보니 산세가 좋지 않아서 안터로 와서 터를 잡았다고 하며 가장 오래 살고 계시는 분은 12대째 살고 계시는 안웅중씨가 계셨다. 순응 안씨의 11대조 할아버지가 안동 김씨를 사위삼아 이 마을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 김씨, 감씨, 전씨등도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조내골 마을은 김씨와 이씨가 가장 많이 모여 살며 형성년대는 서기 1700년경 약 300년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마을의 전형적인 흙집이 그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6) 지 명

十 궁골 마을의 지명

·궁골 : 궁화리에서 가장 큰 마을. "궁"이나 "꿍"은 구유의 고어로서 궁골은 구유골이란 뜻으로 먹은 것이 충분하라는 뜻이 됨. 또는 마을이 활처럼 생겼다 하여 궁골이라 유래 됨.

·국시미 : 돌팍재 뒤에 있는 마을. 뒤에 국수봉의 마을이란 뜻임. "수"가 "시"로 변음 되었음.

·돌팍재 : 안터 위쪽 산등성이에 있는 마을. 큰 돌이 많이 있음. 돌을 파낸 자리가 있음.

·안터 : 중말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장승부리 : 화산 밑에 있는 마을. 마을 앞에 산부리에 장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중말 : 장승부리 서쪽에 있는 마을. 장승부리와 안터 중간이 됨으로 붙여진 이름.

·국수봉 : 국사봉이 국수봉, 국시미로 바뀌었는데 그 국시미 마을 뒷산이 됨.

·염통산 : 궁골 남쪽에 있는 고운산. 모양이 짐승 염통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영통하다는 말이 변하여 염통산이 되었다고도 함.

·오리봉(월오봉) : 신당리 앞에 있는 산. 모양이 오리처럼 생겼다 함.

·수우리 : 조내골 남쪽에 있는 들인데 운수가 좋은 곳이란 뜻임.

·궁골 방죽 : 궁골 앞에 있는 방죽으로 지금은 없어졌음.

·벼락바위 : 조내골 서쪽에 있는 바위. 전에 벼락이 떨어져서 바위가 여러조각으로 되었는데 전설이 있는 바위.

·장승배기 : 장승부리 청룡쪽에 있는 장승터.

·청동유물 발굴지 : 동검, 동조, 동경등이 발굴되었음. 청동기 시대의 유물임.

十 조내골 마을의 지명

·신당리 : 궁골 남쪽에 있는 마을. 새 당집을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조내골 : 화산 남서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조리 같아서 조내골이라는 설이 있고, 이곳에 "조"를 심는 밭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함. 또는 예전부터 새가 많이 와서 살았다 하여 조내골이라 함.

·주량치기 : 신당리 아래에 있는 들. 곡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다는 표현으로 곡식이 잘 되는 들이란 뜻임.

7) 전 설

十 효자비에 대한 전설 (궁골 마을)

순응 안씨의 8대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병환으로 누워 계실때 그의아들이 어머니의 변을 손으로 짚어 직접 먹어본 후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약을 직접지어드렸다고 하고 겨울에 어머니가 잉어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방죽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였더니 잉어가 올라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효자비가 내려왔다고 한다.

十 효자 안일관의 효행에 대한 일화

아버님이 병환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셨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히 살다 가셔도 서글플 터인데 병까지 얻어 고생하시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니 일관은 몇 백리 되는 곳에 용한 의원이 있기에 엄동설한에 발걸음 한번 멈추지 아니하고 단숨에 달려가 약을 얻어 아버님께 드렸으나 아버님의 병환은 더 해만 갔다.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보면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일게야.' 일관은 자신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리라 다짐했다.

이런 일관을 본 한 의원이 가르쳐 주기를 "자네 정성이 그러하니 내 한가지 방법을 아려 주기는 하겠는데 워낙 이루기가 힘들어서"

"힘들어도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니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이렇게 되뇌이며 그는 청아를 다려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에 일관은 가슴이 멎는 듯 했다.

그 구하기 힘든 청아를 그것도 이 추운 겨울에 그는 앞일이 걱정되었다.

"청아를 구하지 못한다면 아버님은 어떻게 되시? 하지만 구해 봐야지"

하며 백방으로 수소문도 해 보고 온 산천을 찾아 헤맸으나 구하지 못했다. 사연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미친 것이라며 일관을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일관의 정성을 알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만 청아를 구할 수 있는가를 일관과 같이 걱정해 주는 것이었다. 일관은 하는 수 없이 하느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고 믿고 앞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느님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원을 호소하였다.

그렇게 한 지 백일째 되던 날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일더니 어디선가 한 줄기의 바람이 불어 오는 것이었다. 더욱 더 이상한 것은 그 바람에 청아가 실려 오는 것이었다. 청아를 얻은 일관은 하늘을 향해 몇 번씩 절을 하며 감사 드렸다. 그리고 나서 청아를 다려 아버님께 올렸더니 며칠 사이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하늘을 올린 일관의 효성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병이 나으니 얼마 후 아버님께서 죽순이 몹시 잡숫고 싶으시라며 일관에게 일러 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죽순을 구하는 일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었다.

이러던 차에 일관이 꿈을 꾸는데 신령님이 나타나셔서 고개 너머에 있는 칠성산을 오르다 보면 버섯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거기에 가보라 하셨다.

꿈이 하도 기이해서 일관은 즉시 그 곳에 가보기로 했다. 칠성산은 여간 험한 산이 아니다. 눈이 무릎까지 오고 가파르기가 이를테 없이 오르기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었다. 발을 잘못 디디어 구르기를 몇번 이렇게 해서 버섯바위에 이르니 정말 하얀 눈사이로 파아란 죽순이 돋아 있었다. 일관은 그것을 뜯어다 해 드렸다

일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했던들 이런 일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궁골 마을에서는 매년 10월 1일에 순응 안씨의 시체를 드리고 있으며, 20년전까지만 해도 성황당 앞에서 제를 지내곤 했으나 기독교인이 많이 들어와서 그 나무를 베어 불을 땠다고 한다.

조내골 마을은 매년 12월 말일에 마을 대동계를 통해 마을의 대소사를 같이 해결하며, 매년 어버이날에는 경노잔치를 열어 음식을 대접하고 청년회에서 우친계를 조직하여 마을에 애사 있을 때 서로 도와 주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十 효자 안일관

효자 안일관은 흥령 부원군 경공의 10대손으로 어릴적부터 천성이 곱고 웃어른에게 예의 범절을 다 할줄 알며, 부모님에 대한 효도 또한 남달리 뛰어나 종가 어른들의 총애와 귀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옛말이 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쏟는 정성이 가특했고 자라나서는 더 한층 빛을 발휘했다. 그래서 일관은 아버님 어머님의 검은 머리털이 하나 하나 변해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그 효도를 다했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여 안일관의 효에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충청도 관찰사 심 선지가 신창면에 들렀다가 그의 높은 덕과 효성을 받들어 궁화리 일구에 효자문을 세움으로서 더 한층 빛을 나타내게 되었다.

10) 종교현황

궁골 마을에는 기독교 단체로 궁화 감리교회가 있는데 신도수는 39명으로 조사 되었고, 궁화 침례교회 신도수가 역시 39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조내골 마을은 종교단체가 없다.

11) 공장 현황

궁골 마을의 공장은 한영엔지니어링으로 에어컨 부품 만드는 곳인데 지금은 휴업중이며, 현대 테이프로 접착제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조내골 마을에는 많은 공장이 있는데 금속조립공장인 구용산업, 성형 가공식 제품을 생산하는 광동산업, 가진 (주) 로 시멘트 블록을 생산하는 공장등 다수의 많은 공장이 있다.

力현대테이프 : 산 91-1번지, 허가일 91.3.23., 면적 5,194 종업원수 17명, 접착제 제라틴

力한영 엔지니어링 : 궁화 316, 에어컨 부품, 95. 11. 30. 면적 1,338㎡, 지금 휴업중이다.

力현대산업기계 : 궁화 106-9, 허가일 91.8.26., 면적 8,931 종업원수 17명, 펄프 및 압축기

力구용산업(주) : 궁화 166-10, 허가일 97.12.10, 면적 1,205 종업원수 15명, 금속 조립구조재

力풍미 : 166-1, 허가일 98.2.24., 면적 4,078(미착공), 자동차부품

力백암산업 : 궁화 산81-2, 허가일 93.7.7., 면적 10,863(건축중)과실 및 채소 절임

力광동산업 : 궁화 산81-2, 허가일 97.3.5., 면적 3,021 종업원수 10, 성형가공식 제품.

力서경열연 : 궁화 168-7, 허가일 94.11.16., 면적 2,204(미착공) 산업용플라스 틱성형

力진승테크-궁화 168-8, 허가일 94.11.16., 면적 2,247(미착공) 가공공작기계

力영신산업-궁화 167-1, 허가일 95.10.20., 면적 1,210(건축중), 묘석제작

力거동(주)-산 143-7, 허가일 96.10.2., 면적 55,962(미착공), 자동차부품

力가진(주)-산 76-1. 허가일 97.12.6., 면적 29,282, 종업원수 8명 시멘트블럭

12) 마을의 특성

궁골 마을은 마을 앞에는 논이 펼쳐져 있으며, 순응 안씨의 효자비가 있으며, 김씨성을 갖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주로 밭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며, 무와 수박을 많이 심으며, 서로 상부상조하며 협력하여 마을이 화목한 마을이다.

조내골 마을은 궁골 마을보다는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며, 마을 뒤로 작은 야산이 있어 마을 옆에는 과수원이 있고, 주로 벼농사를 많이 짓고 과수작목반이 있어 사과와 배를 재배 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마을은 정이 많은 시골 마을이다.